

나주시, 나주배 신형시장 수출전문단지 육성 농가 교육 실시

전국 최대, 세계 최고의 명품 배를 생산하는 전남 나주시가 '나주배 신형시장 수출전문단지 육성'을 위한 농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주시 거점APC(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개최된 이번 교육에는 동남아, 유럽 등 신형시장 수출 전문단지 육성 사업에 참여한 90여 명의 배 농가가 참석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나주시 배 산업 정책 방향과 배 꽃 수정이 끝난 후 과원 관리 등 재배기술, 수급 불안

정에 따른 배 꽃가루 확보 대책, 수출전문단지 육성 계획, 수출 검역 관련 주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나주시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 관련 배 수출전문단지는 물량 확보가 용이해 그동안 안정적인 수출이 이뤄진 반면 동남아와 유럽 등은 수출전문단지가 전무해 육성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동남아와 유럽 관련 수출전문단지 육성은 나주시 최초로 시행하는 중

점사업인 만큼 배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올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등 신형시장 발걸을 위한 배 세일즈를 이어가고, 시장인 증 품질보증배인 '천년이음 나주배'의 성공적인 안착과 미주 및 신형시장 수출전문단지육성, 무GA재배농가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윤병태 시장은 "배 농가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

을 다 할 테니, 세계 최고의 배를 생산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나주시는 민선 8기 들어 미국,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등 신형시장을 겨냥한 적극적인 배 세일즈를 추진한 결과 5천256톤 수출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나주시장이 인증하는 배 품질보증제를 시행한 이후 184톤을 출하, 4억6천만원의 농가 소득을 올린 바 있다.

/김동철 기자

화순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확대

내달부터 시작...3종 추가, 최대 5천만 원 보장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군 복무 중인 청년이 복무 중 사고 등에 대해 안심하고 국방 의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이 해당하며, 보험이 제도화된 직업군인·경찰 공무원·소방공무원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에 입대할 시 자동 가입,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애(5천만 원) ▲상해 입원(1일 5만 원) ▲질병 입원(1일 3만 원) ▲골절·화상진단(30만 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300만 원) ▲수술비(1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300만 원) 12종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백만 원) ▲특정 상해성 뇌 손상 진단비(100만 원) ▲외상성절단 진단비(100만 원) 3종이 추가돼 총 15종이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비 등 3종의 보장 내용을 추가해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세심히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민수 기자

영광천일염 첫생산 채염행사

영광군(군수 강종만)과 영광천일염연생산자협의회(회장 강명수)는 최근 천일염자연학습장에서 오미화도 의원, 강필구 의장, 김강현 군의원,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장을 비롯한 천일염 생산자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영광천일염 첫 생산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무사풍년을 기원하는 천일염 채염 행사를 개최했다.

영광 천일염 채염 행사는 '염산면'의 균유염전에서 진행됐다.

특히, 영광 천일염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손꼽히는 칠산 앞바다의 드넓은 갯벌을 품고 나갔다가 밀고 들어오는 청정바닷물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제조방식을 고집해 생산하고 있어 천연미네랄과 알카리 성분은 풍부하고 염화나트륨 함량은 낮아 전국 어느 지역 생산 소금보다 높은 품질과 맛을 자랑하고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정부 지원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천일염 생산여건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돕기 위해 염전 바닥재 개선, 소금생산시설 자동화 장비 보급 등 천일염 생산기반 개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고품질의 명품 영광 천일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이경률 기자



장성군이 최근 황룡면 문화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문화·복지 거점 기능은 물론, 주민 소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번 센터 건립은 '황룡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황룡면 문화센터 준공식 가져

장성군이 최근 황룡면 문화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문화·복지 거점 기능은 물론, 주민 소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위치한 문화센터(월평리 92-1)는 4천 17㎡ 규모 부지에 건물과 주차장, 쉼터, 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실내는 다목적 강당, 세미나실,

마을부역을 갖춰 교육, 모임 등 다양한 주민 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센터 건립은 '황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화센터 건립 △소통광장·안전마을길 조성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황룡시장 부근 '황룡소통광장(장산리 9-23)'은 시장 고객과 주민을

위한 교류·휴식 공간이다. 주차장 166면과 녹지, 보행로, 팔각정, 의자 등을 설치했다.

'안전마을길'은 황룡시장, 문화센터, 소통광장 인근에 조성된 길로 도로 82m, 인도 298m 규모다.

'역량강화사업'은 전문가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내실을 다진다.

/유광중 기자

"담양 육성 딸기, 해외 첫 로열티 받는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최근 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 본사에서 담양 육성 딸기(죽향, 메리퀸) 로열티 계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린도그룹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한상기업(한국 재외동포 기업)이며 TSE그룹은 코린도그룹에서 산림, 농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 영역으로 분사한 곳이다. 수년 전부터 도시형 농장(어반팜)에 주목하며 실내 수직농장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오고 있다.

담양군과 TSE그룹 간에 체결된 이번 계약은 10년 기간 전용실시권 계약으로 담양군은 1억 원의 로열티를 받고, 담양육성 딸기의 성공적인 재배를 위한 기술 지원을 한다.

TSE그룹은 담양군과 협력해 인도네시아에 도심 및 근교에 대규모 딸기 식물공장을 조성하고 딸기 연중

재배, 재배 면적 확대 등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특히 인도네시아 소비자 대상 딸기 시식 테스트 결과, 죽향이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종으로 조사돼 향후 담양 딸기의 판매가 이뤄지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담양군은 올해 몽골에 이어 베트남에도 딸기를 수출하며 동남아 국가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이외에도 중동과 유럽, 미국에 딸기 원도 수출을 추진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이 담양 딸기의 세계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장정성 기자



“무안공항과 연계한 광주 군 공항 이전”발언 무안군민 버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즉각 사과하라!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 · 무안군 의회 · 전남도의원(나광국·정길수)